

학술지 평가정책 및 방법

한상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교수

차 례

- 1 학술지 평가정책의 필요성
- 2 학술지 평가모형의 개발 원칙
- 3 학술지 평가의 의의
- 4 학술지 평가에 관한 이론과 방법 개요
- 5 학술진흥재단의 국내 학술지 평가사업의 현황

1. 학술지 평가정책의 필요성

- 정보화시대에 한 국가가 독자적인 지식생산능력을 갖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 하나의 국가가 독자적이고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식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필연적으로 타국의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국내의 경우 학문분야에서 유통되는 지식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거나 외국의 것을 그대로 발행하거나 외국의 것들은 모방한 것임. 이처럼 한 나라의 사회와 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학문적 지식이 종속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함. 정보화사회의 큰 특징은 창출된 정보의 전달수단과 전달되는 정보의 이용임.

- 지식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질 높은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 필요.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가 학술지의 질을 높이는 것임. 학술지는 학문의 교류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 지식의 축적수단으로서 그 나라의 학문수준을 가늠하기 때문에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술지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함. 즉, 한 국가의 학문발전과 학문의 독자성 확립에 학술지의 질과 수준의 향상은 매우 중요하므로 국내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첫 과제는 학술지에 대한 평가임.

2. 학술지 평가모형의 개발 원칙

- 평가모형은 학술지의 질을 정확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함. 학술지의 장점과 단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질의 측정과 질 향상이라는 평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함.

- 평가모형은 국내 학계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적합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연구자들과의 면담과 설문조사, 외국사례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평가모형을 개발하였음.

3. 학술지 평가의 의의

- 학술지 평가는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며, 이를 통해 학술지간에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국내 연구인력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크게 기여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술지의 질과 학문의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도서관이나 다른 종류의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학술지를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양질의 학술지를 선택함으로써 문헌정보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임.
- 국내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학술지 선정에 기여할 수 있고, 문헌정보 검색과 제공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임.

4. 학술지 평가에 관한 이론과 방법 개요

- 학술지 인용에 근거한 평가 : 질 높은 학술지는 많이 인용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함. 이러한 인용의 계량적 분석을 통한 학술활동의 평가 중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가 발행하는 JCR(Journal Citation Report)이며, 인용횟수와 Impact Factor 등 인용의 계량적 측정치에서 파생된 몇 개의 인용지표를 사용함.

- 주관적 평가 : 소수의 평가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대상을 평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개인의 양심과 식견에 근거해서 평가함.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이며 우수하고 양심적인 평가위원의 선정이 가능하고 신임이 두터운 경우 가능. 하지만 몇몇의 전문가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평가이므로 몇 가지 단점이 있음.

첫째, 명시된 기준이 없으므로 매우 주관적일 수 있음.

둘째, 인적, 사회적 요소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되는 학술지 자체 이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 설문에 의한 평가 : 다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평가. 이러한 평가는 특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와 설문에 의해 조사된 학술지의 인지도 등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수행됨.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학술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있었으며 인용분석에 의한 평가결과와 상당한 관계가 있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개인적인 편견이 평가에 개입될 가능성이 큼.

- 평가항목에 의한 평가 : 학술지 질에 연관된 몇 개의 항목을 정한 후 정해진 항목을 근거해서 평가하는 방법. 하지만 학술지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하지 않음. Scientometrics와 Bibliometrics가 학술지 혹은 학술활동의 계량화를 다루는 학문분야로서 학술지 평가항목에 연관된 학문분야지만 인용의 계량적 측정치에서 파생된 평가항목만을 다룸. 이외에 평가항목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많지 않으며 계량화하기 쉬운 변수들만 다루거나 이론적인 것만을 다루고 있는 형편임.

- 학술적인 연구결과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평가항목을 선정해 평가하는 경우도 있음. 국내의 경우 의학분야에서 평가항목을 선정해 의학학술잡지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1997년 3월 26일 서울 중앙병원에서 개최되었던 '대한 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1997년도 정기총회'에서 학술지 평가사업에 관한 보고가 그것임.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제시되었고,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의 전반적인 과정과 학술지와 게재 논문의 외면을 평가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었음. 평가항목은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의학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것임.

- 국외의 경우 미국의 ISI와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 평가항목을 사용해 학술지를 평가함. ISI는 JCR의 인용분석 결과를 이용해 학술지를 평가하지만, 인용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을 선정해 학술지를 평가하고 있음. 이들이 사용하는 평가항목은 ①정시발행 ②서지사항의 정확성 ③언어 ④게재소요시간 ⑤논문심사 ⑥심사자와 투고자의 연구실적 ⑦심사위원과 저자의 지역적 분포 ⑧주제의 적합성 ⑨분야의 발전전망 ⑩기존의 학술지에 대한 보완성 ⑪출판사. ⑤, ⑥, ⑦ 세 항목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ISI가 인용색인을 원활하게 발행하기 위해 선정한 항목으로 보임. 결국 인용에 의한 평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이외의 항목에 근거한 평가결과를 점수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 이외의 평가항목의 적용은 엄정하지 않음.

- NLM은 선택된 평가항목에 대해 Literature Selection Technical Review Committee가 평가. NLM의 경우는 각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수치로 표현하며 투고 논문의 질에 많이 치중함.

- 기타 방법에 의한 평가 : 랭카스터(Lancaster)는 ①도서관 이용 ②타 기관의 서지 데이터 ③이용자의 의견 ④인용 ⑤Impact Factor ⑥비용의 효율 ⑦출판된 논문 수의 방법을 제시했음.

5. 학술진흥재단의 국내 학술지 평가사업의 현황

- 학술진흥재단은 우리 나라의 학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학술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국내 학술지평가는 국내의 학술진흥을 위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학술지 평가를 통하여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술지를 선정하고 중점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는 수준 높은 학술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며, 수준 높은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한 연구자의 연구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구자에게 우선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연구를 유도하게 되어 우리 나라의 학문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또한 학술지평가를 통하여 학회의 운영체계를 재정립하거나 학회의 분화 및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 밖에도 정보서비스 기관의 학술지 선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며 각 대학에서의 교수의 임용·승진 등을 결정하는 좋은 정보가 될 것임.
- 결국 학술지의 평가는 학술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연구자간, 학술지간, 학술연구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학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학술진흥재단은 1997년 국내 학술지의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24개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음.
- 평가항목의 전체적인 구조는 심사기준과 절차에 관한 부문(41점), 게재논문의 수준 부문(20점), 대외적 가치부문(14점), 형태와 발행기관 부문(13점), 발행기관의 신뢰도(12점)의 5개 부문 24개 항목, 총점 100점으로 구성.

국내학술지평가모형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평가부문)	
객관적 평가	1. 심사절차	2	투고논문심사	
	2.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	4	"	
	3. 편집위원의 연구실적	3	"	
	4. 논문 게재율	10	"	
	5. 심사결과의 균일성	2	"	
	6. 학술지 배포의 전국성	5	대외적 가치	
	7. 게재 논문 언어	5	"	
	8. ISSN 부여	1	"	
	9. 정시 발행	6	형태와 발행기관	
	10. 발행기관의 전국성	3	발행기관 신뢰도	
	11. 논문저자의 전국성	4	"	
	12. 학술지 역사	3	"	
	13. 회원 수	2	"	
		13개 항목	50	
주관적 평가	분과위원 평가	1. 심사기준의 구체성과 엄정성	4	투고논문심사
		2. 심사절차의 구체성과 엄정성	3	"
		3. 편집위원 선정기준과 절차의 구체성 및 엄정성	5	"
		4. 편집위원의 대외활동	3	"
		5. 수정제외의 상세성과 구체성	5	"
		6. 등재하고 있는 색인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명성	3	대외적 가치
		7. 인쇄의 질 및 지면배정의 효율성	2	형태와 발행기관
		8. 투고 규정의 상세함과 구체성	2	"
		9. 논문 초록의 질	3	"
		9개 항목	30	
	주제전문가 평가	1. 게재 논문의 질 및 독창성	15	게재논문의 수준
		2. 학술지의 전문서	5	"
		2개 항목	20	
계	총 24개 항목	100		

- 심사기준과 절차부문의 항목들은 게재 논문의 심사에 관련된 기준, 절차, 과정, 심사자, 심사결과 등에 관한 평가를 위한 것임.
- 심사과정의 엄정성은 학술지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대외적 가치부문의 항목들은 전국성이나 국제성에 관한 평가로써 전국성 및 국제성을 인정받은 학술지가 질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 형태와 발행기관의 신뢰도 부문의 항목들은 학술지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조건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임.
- 발행기관의 신뢰도 부문의 항목들은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이며 게재 논문의 수준부문의 항목들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임.
- 독창성이 높고 연구방법이 타당한 논문이 질이 높은 것이며 자질 있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전문적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질이 높다고 봄.
- 학술진흥재단은 1998년 3월 9일 전국 학회 및 학술지평가 신청안내 실시. 평가대상 학술지는 연구자들간에 학술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로 하고, 평가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였음. 평가결과 인증을 받은 학술지는 3년간 유효기간을 정하여 3년 후에는 재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인증을 받지 못한 학술지에 대하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 가능. 또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보완 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술지에 대하여는 예비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1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평가방법은 계량평가가 가능한 객관적 평가부문과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주관적 평가부문으로 구분, 주관적 평가부문인 학회나 학술지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는 재단의 학술연구평가위원회 분과위원이 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평가자는 학술지당 각 부문 별로 2인 평가.

-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방법		평가문항수	배점	평가자
객관적평가		13	50	재단
주관적평가	분과위원 평가	9	30	분과위원(패널평가)
	주제전문가 평가	2	20	해당학문분야전공자(우송심사)
계		24	100	

- 첫 평가가 실시된 1998년도에는 10월 14일까지 평가를 신청한 103종의 학술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문제점

첫째, 학회로 하여금 학술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학회들의 준비가 부족하였으며 그것은 평가 신청 건수에서 나타났음. 이는 우리 나라의 학회가 운영체계면에서 소홀하다는 반증이기도 함.

둘째, 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하여 평가를 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평가항목이나 기준들이 일부분 실제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며 평가항목에 대한 개발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셋째, 현행의 평가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평가는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어 앞으로 평가신청이 증가할 경우 소요경비와 시간적인 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임.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효과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필요.

- 학술지평가에 있어 평가항목에 의한 평가는 각 학회별, 학문분야별 특성이 다른 관계로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단은 사업계획수립부터 미국의 ISI와 같은 학술지의 인용도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학술지 인용색인 DB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임. 이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인용문헌을 조사하여 인용빈도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용도 조사를 위하여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는 분석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통계 및 평가자료로써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평가추진일정과 결과

‘98. 3. 9 학술지평가 신청공모

‘98. 10. 21 ~ 11. 30 학술지평가 실시

‘98. 12 학술지평가 최종확정(등재후보학술지 58종 선정)

- 평가대상 학술지 : 103종

-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결과

- 정책변경

평가인증 학술지를 재단 학술연구평가위원회에서 **등재후보 학술지**로 변경.

- 학술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 필요.

1. 객관적 평가항목

게재율 문제

심사결과의 균일성 문제

구분	총신청 종수	등재후보 선정 종수
대상학술지	103	58
선정기준		총100점 중 60점 이상획득 학술지를 등재후보로 선정
분야별 선정 종수		인문 9, 사회16, 자연13, 의약학3, 공학13, 농수산해양1, 예체능3, 합계 58종,

회원 수 평가

정시발행

2. 주관적 평가항목

심사기준의 구체성과 엄정성과 심사절차의 구체성과 엄정성 문제.

-등재후보학술지에 대한 계속평가 문제

평가계획 : 등재후보로 선정된 학술지는 향후 2년간 2차례 정도 계속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경우 최종 등재 학술지로 선정.

(98년도 학술연구평가위원회 의결)

평가방법 : 계속 평가는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된 후 2년간 계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가를 평가.

계속평가의 경우 후속 평가기준 개발.

유효기간 : 등재 학술지로 최종확정시 유효기간을 3년 정도 인정.